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한 일

빌립보서 1:6

“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하노라.”

I. 들어가며

우리는 지난 주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바뀐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행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를 주님을 아는 자들, 곧 ‘성도’로 부르신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나눔 01. (도입질문) “청교도들은 신앙을 말할 때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낀 순간이나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 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입질문의 첫 번째 문장은 당신에게 부담입니까? 위로입니까?

II.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한 일

A. 첫째, 우리 안에 착한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열심이나 특정한 헌신 혹은 어떤 획기적인 계획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구속의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16:16-18/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 신앙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교회는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것은 베드로의 총명함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이 구원은 우리의 어둠함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 나눔 02. (나눔질문) 신앙 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스스로를 의지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청교도들은 자기 확신을 가장 위험한 신앙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요?

B. 둘째,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또한 이루신다.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착한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착한 일은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머리로서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앞의 에베소 교회의 현실은 분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싸웠든지, 빌립보서 4장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

였습니다. 현실은 ‘이루심’과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이루실 이 착한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다시 보면 “너희 안에서” 시작했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즉, 깨끗한 집은 누군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집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을 청소하고 가꿉니다.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청소가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철이 들면서 아들, 딸, 그리고 아버지가 동참하면서,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부족한 그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물을 주고, 자양분을 공급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는 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 중 누구보다도 크신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착한 일을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실망의 현실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결코 작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교회로, 한 구역으로, 한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착한 일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서로 알리고 깨워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이루심이 ‘우리로부터’라면, 우리는 변덕스러운 우리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나눔 03. (나눔질문)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은 무엇인가요? 빌립보 교회처럼 공동체의 연약함이나 갈등 때문에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교의 예화처럼,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지쳐 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C. 셋째, 그러면, 이러한 착한 일을 이루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

리는 확신하노라.”

사도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시작된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민수기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에게 근거를 두었다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안한 인생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루시는 분은 변함없으시고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때까지 ‘준비케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현재적으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참된 회심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 나눔 04. (나눔질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에 동참하는 삶”이, 나의 일상 - 가정, 직장,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의 지체들의 회심과 회심의 보존을 위해, 이번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우리 구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예 : 새벽, 점심, 저녁 : 구역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정하기)

III. 결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은 “취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성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상황인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구역원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상대방의 이름, 조성용 목사)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말하는 사람 이름, 김형찬목사는) 확신하노라.”

구역원 기도제목 나눔

마침기도(또는 주기도문)
